

야호브랜드 활용 · 사업 홍보 탄력

전주시, 야호놀이터 · 야호학교 · 야호 통합브랜드 등 7종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전주형 아동정책의 가치를 높일 '야호 브랜드(BD)'가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

전주시는 야호놀이터, 야호학교, 야호 부모학교, 야호 통합브랜드를 포함해 총 7종의 야호브랜드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등록이 결정된 야호브랜드는 ▲놀이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놀이터인 '야호 놀이터' ▲전주형 창의학교로 미래에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야호학교' ▲연령별 · 대상별 · 기관별 · 권역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

하는 '야호 부모학교'와 야호 통합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 ▲삼별 ▲국문 로고 ▲영문 로고 등이다.

'꿈꾸는 나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브랜드이미지(BD)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배우며 '야호~'하고 절로 환호성이 터지는 아이들의 도시를 형상화해 만들어졌다.

시는 향후 야호 5대 플랜 관련 사업 추진 시 야호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나 갈 계획으로, 사업 명칭을 대외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업 홍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무표장 등록으로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아동들의 놀 권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숲속과 도서관, 미술관, 학교 등에서 전주지역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면서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로, 전주시는 그간 '한국의 꽃심, 전주', '전주인문학 365', '은두레공동체' 등 등록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 문화유산 코스 추가

풍패지관~전라감영~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 등 6곳 순서대로 둘러보는 코스

전주한옥마을을 관광을 즐기고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가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운영한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를 올해는 전라감영과 전동성당, 오목대 등 한옥마을 인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새롭게 추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코스별로 돌며 스탬프를 획득하고, 코스 완주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 운영되는 문화유산 투어 코스는 풍패지관~전라감영~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

등 6곳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코스로, 1시간 내외로 완주할 수 있다.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을 통해 체험 신청을 한 후 문화유산 투어 코스를 완주한 경우에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수공예품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스크 줄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한지 브로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했던 골목길 3개 코스를 완주해 받는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 작가 기념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재미있는 전주한옥마을 컬러링북'도 받을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전주시민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개 코스, 총 21개의 스탬프존을 운영했다. 1코스는

600년 은행나무~선비골목길~승광재~오목대 담산나무~전주향교 은행나무~우물이야기~오목교로 구성했으며, 2코스는 최명희길~한옥마을 10경 골목길~한옥마을역사관 골목길~은행로 오목정~네모난 실개천~전주향교 골목길~오목대데크 전망대가 포함됐다. 3코스는 교동미술관~추억소환 골목길~공예한지 골목길~쌍샘과 양사재이야기~오목대수퍼와 원광수퍼~향교수퍼~자만벽화마을로 기획됐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노인 · 장애인 위기상황 신속한 안전 확보 시스템 구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학산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 박주중)와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성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이원)은 26일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의 신속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중앙관계기관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산 ·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평화동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주중 공동위원장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대처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 두 복지관에 감사드린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 박주중)와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성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이원)은 26일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윤상 기자

책 통해 영유아 부모 · 아이 유대관계 형성 돕는다

전주시, 11월까지 도서관 등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 추진

책이 많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와 함께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책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전주시 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5곳, 어린이집 15곳 등에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는 생후 6~4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즐겁게 놀면서 책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전주시 도서관 8곳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건지·삼천 도서관과 효자·평화도서관에서는 각각 5~6월과 9~10월에 '주말 가족과 함께 책 놀이' 프로그램이 열린다.

초록우산·인후비전·꿈드림·간담대·책마루어린이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5곳에서도 책 꾸러미를 통한 책 놀이 활동이 실시된다.

평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자원활동가와 어린이자료실 담당자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들어있는 책 꾸러미를 나눠준 뒤 책 놀이 활동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부모와 아이, 책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도 펼친

다. 부모교육 특강은 다음 달 14일 건지도서관을 시작으로 8개 시립도서관을 순회하며 이어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자원활동가 60여 명을 모집한 뒤 책 놀이 관련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덕진도서관 관계자는 "각 도서관 별로 책 놀이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 즐겁게 놀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4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4명의 전주한지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한지장들과 전통한지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시,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수렴 · 발전방향 논의... 전통한지로 전주시장실 창조지 교체

전주시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4명의 전주한지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지장들은 전통한지 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한지장들은 전통한지로 전주시장실 창조지를 교체했다. 이날 사용된 전통한지는 시가 재배한 다투나무가 원료여서 의미를 더했다.

전주산 다투나무로 전주한지장이 제작한 전통한지는 지난해 4월 조선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보수에 활용됐으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작에 이용된다. 앞서 시는 유아동 왜망실과 증인 등 계약재배 농가에 지난해 1만8,000

주의 다투나무를 심어 15톤의 다투나무 줄기와 약 3톤의 흑피를 수확한 바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주 전통한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한지장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의 협약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